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강원도 영월군
- 석정여자중학교



2019. 1

차*희

팀이 구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컸다. 하지만 예상외로 석정여중에서 이화봉사단 활동은 굉장히 보람찼다. 먼저 학생들이 열정이 넘치고 꿈도 큰 학생들이라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단원들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연을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선순환 덕분에 봉사단원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학생시절에 내가 했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한 힘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같은 팀원들과도 수고스러웠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매일 밤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 기뻐고 모두에게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원들과 프로그램을 짤 당시에는 학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라 겪는 어려움이 제일 컸다.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고, 캠프 기간이 정말 기억에 남는 즐거운 활동으로 기억되었으면 해서였다. 때문에 팀원들과 몇 시간씩 회의를 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수정했다.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준비물을 구입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 지쳤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즐겁게, 열심히 참여해주는 학생들을 보며 뿌듯했고 즐거웠다. 또한 부가적으로 가졌던 개별 상담 시간에 ' 쌤들이 너무 좋다'라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힘을 냈고 너무 고마웠다. 학생들에게 너무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마지막 날 헤어질 때에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을 보며 나도 그 친구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정이 들었고 그 기간 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화봉사단이라는 경험은 내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고, 함께 했던 석정여중 친구들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처음에 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봉사활동이 시작되고 직접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함을 느꼈고 준비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기에 매일 계획한 일정이 끝난 후 다음 날 프로그램을 미리 함께 진행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더 높이고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렇게 점점 활동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더욱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전에 설정된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모든 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진로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스스로 나의 미래 또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봉사 기간이 지남에 따라 아쉬움이 더 컸고 학생들,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온 이후,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 되어 본 것이 처음이었다. 봉사를 가기 전에는 어리게만 느껴지던 15살의 친구들이 4박 5일동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면서 대학생인 나와 다른 게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올해 16살이 되는 친구들이 고민하는 주제와 내가 고민하는 주제가 비슷하였고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내가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느낌보다 내가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지방 지역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걸 재고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에서만 교육을 받은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방 지역의 친구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 어린 친구들에게 벌써부터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이 봉사 내내 마음에 걸리는 점이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번 봉사를 통해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나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